

韓國 農業經營의 一般的 屬性과 農家經濟

許 大 京

I 序 論	3. 農業經營費의 構成
■ 農家經濟 剩餘의 吟味	4. 農外收入과 農家의 兼業化
1. 農家經濟 安定狀態의 判別	IV 農業經營成果의 分析
2. 農家經濟 收支밸런스 差異	1. 農業經營規模의 指標
3. 農家經濟 赤字의 原因	2. 農業生產力의 指標
■ 農家의 所得形成과 그 環境	3. 農業生產力의 構造
1. 農家所得의 構成	4. 自家勞動에 對하여
2. 農業收入과 農產物의 商品化	V 結 論

An approach to the Korean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farm household economy

by Dae-Kyung Huh

-SUMMARY-

I. Introduction

Even though the Farm-Land Reform had been carried out after the Korean Liberation of 1945, the farm household economy in Korea still depends only upon family labor. Even after farm land reform, the lack of economic planning on farm structure has brought about the proliferation of the poor and small farming household. The average under distributed cultivation per farm household in the country is less than 0.9 Chung-bo; the average income per household is only 60.1% of the income earned by every farming family in 1967. This has brought about the collapse in the balance of the national economic progress which has been the country's economic policy.

II. The Surplus of the Farm Household Econom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income deficit in the farm-household, but all of these reasons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st of living. It may be simply described as follows:

1) Most farm households might be expected to run deficit since their cost of living is the same as that of town's people.

2) A farming house having between 0.5 chung-bo and 1 chung-bo under cultivation must expect a deficit, if they have only their agricultural income to pay for their living expenses.

III. The structure of the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the farming house.

The larger the size of farming the greater their income; the smaller the scale of farming the less their income. Farm household income is almost proportionated to its size. The average farm household income per capita in Korea is the level of about 150,000 won.

IV. Analysis on the result of farming management.

The average land under cultivation of each farmhousehold is 0.9 chung-bo and the farm families having under 1 chung-bo amounts 67.6% of all farm houses. Farm households often have side-businesses with earning capacity.

As a result there are many poor farm households. Agricultural products are produced by manual labor in Korea. Needless to say, this labor is often enough extremely strenuous. There is little earning expenses of farmer's i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e farming business in the country is to make a family living, therefore they do not count their family labor in the cost of production. Farmers in Korea have traditionally considered their family labor as "Gong-zza" (income without any charge). For this reason, We can't expect to account the expenses for agricultural productions to be modern or to make a business profit. But now, the farm household economy is permeated by the reproductive productive processes of the economy under capitalism in which the family labor ability can become a commodity. Though such a process, the idea that family labor is "Gong-zza" (i.e. The gain by free of charge) will be gradually changed.

V. Conclusion

The first problem that requires immediate attention is to redistribute farm land, for this will surely promote farm surpluses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agriculture industry in Korea, as well as raise the economic efficiency of farm land now in use.

There are many reasons for putting together management units of poor and small farm households in order to set up the co-operation of agriculture as a method to improve its structure. This improved structure will be able to make reinves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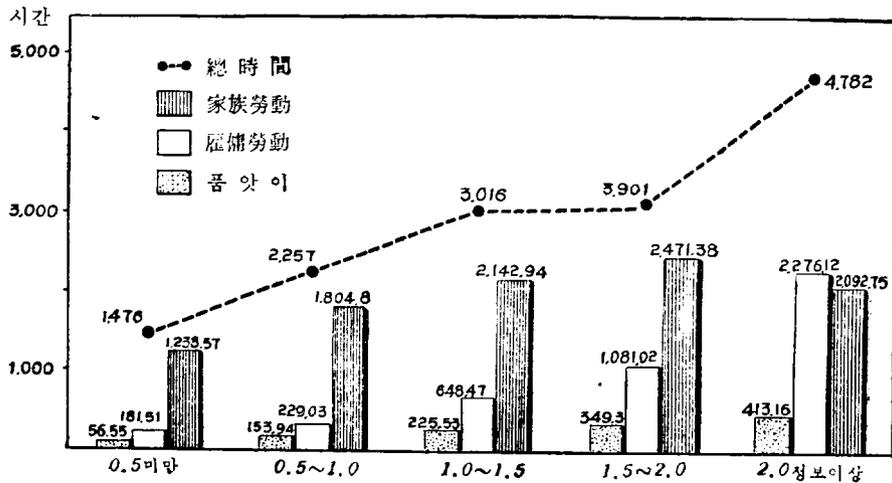
funds available. In addition, agricultural management will be on a larger scale as a result of this. Therefore, this will not only obviously increase productivity but also farm household income per capita will be on a parity with that of town's people.

I 序 論

한 마디로 農業經營이라 하지만 自然的 條件과 作物의 종류에 따라 經營規模나 組織의 多樣性이 形成되고 經營의 成果도 달라진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作物이라 할 수 있는 米麥穀을 主体로한 經營에서는 2町步까지는 大体로 家族勞働만으로 經營되고 (圖1) 2町步以上이 되면 雇傭勞力에의 依存度가 多少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도 亦是 家族勞力이 主이고 보면 「雇傭勞力에 依存하는 農業經營」이라면 10町步 以上이라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그와 같은 資本家의 經營이란 殆無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한편 해마다 經濟的 與件 및 豐凶作에 基因한 變動은 있으나 一般的으로 農業所得만으로 一家의 生活을 維持해 나가자면 最少限 1町5段步에서 2町步 정도의 經營이 필요하다.

< 圖 1 > 農家 勞動投下量 (戶當平均)



(表5參照) 우리 나라 農家の 約 8割은 農業만으로는 生活이 困難하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農業이 얼마나 零細한 經營에 依存되어 왔는가를 窺知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零細農家는 어떠한 農業生産을 해 왔는가. 米穀과 麥類는 各其 總耕地面積에 있어서 40% 및 36%를 차지함으로써 이 兩大穀類의 耕地面積은 總農地의 76% 内外를 占하고 있다.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67, P. 84參照)

우리 나라의 農業은 예나 지금이나 米穀을 中心으로 麥類를 配合한 耕作經營이 그 大部

分을 차지하고 地域差는 있을런지 모르나 廣範圍하게 果樹와 養蠶이 副業的으로 結合된 形態로 되어있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그러므로 農業收入面에 있어서도 米穀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곧 「문순」地帶에 位置한 우리나라 農業의 「아시아」의 特色을 示顯해 주는 것이 된다. 이와같이 比較的 單調한 農業經營이고 또 大部分이 極히 零細한 面積을 耕作할 뿐이므로 대다수의 農業經營이 農業만으로 自立生活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쉽게 理解할 수 있다.

日帝治下와 解放後 農地改革 以前까지의 全期間에 걸쳐 農村經濟를 支配해 왔던 半封建的인 寄生地主制는 生産擔當階層인 小作農民의 營農意欲을 減退시키고 農業生産力의 發展을 萎縮시켜 왔을 뿐 아니라 結果的으로 零細小作農을 더욱 堆積시켜 그들의 經濟는 尙尙 赤字 투성이었고 이로 말미암은 農村의 窮乏은 爾餘의 與件과 함께 農村社會 不安造成의 큰 要因이 되었었다. 解放으로 日本人 地土는 逐出되었으나 半封建的인 寄生地主制는 繼承되었었다.

解放, 그리고 民主主義는 이 나라에 耕者有田의 思想을 안겨다 주었다.

美軍政下에서 行해진 歸屬農地의 分配를 先例로한 方式에 따라 農地改革이 이루어지고 基本的으로는 寄生地主의 土地所有의 根幹을 解体하고 高率小作料의 收奪로부터 農民을 解放함으로써 農業部門에서의 剩餘가 再生産을 위한 資本家의 農業發展에의 길을 터 놓았다.⁽¹⁾ 그러나 改革後의 營農構造에 對한 經濟的 考慮의 缺如로 3町步 所有上限만을 策定했을뿐 다수의 零細小農만을 創出한 結果가 되었고 分配된 戶當耕地 面積도 經營의 擴大와 經濟性的 保障을 約束하는 것이 못되고 말았다.

2次大戰後 世界各國의 農地改革에 있어 共通되고 있는 점은 非生産的인 寄生地主의 土地所有를 農民의 所有로 移轉시키는 것이며 그 目的하는 바는 地主를 一掃하거나 地主의 土地所有를 制限하여 農民에게 土地를 줌으로써 農業生産力을 높이는 同時에 農民生活向上을 圖謀하는데 있었다.⁽²⁾

그러므로 改革에서 오는 經營規模의 零細化는 資本主義的 經營으로의 發展(耕地擴張과 經營의 大規模化, 企業農育成으로의 改革轉換)에의 要請이 얼마나 切實한가를 強調케 하는 것이었다.

農地改革이 營農構造의 經濟性追求를 度外視한채 不徹底한 形態로 이루어졌다는 事實만이 改革後의 農業生産力 發展의 不振의 基本的인 要因이 된 것은 아니다.

一般的으로 過剩人口와 耕地不足을 안고있는 農業社會에서는 제아무리 農地改革이 徹底

(1) 鄭英-「戰後韓國農地改革에 關한一考察」 서울大學校 商科大學:經濟論集 VI卷 2號 P. 109

(2) 大島清:「農地改革と 農業問題」 P. 47

히 이루어 졌다고해도 分配된 戶當耕地로써는 經營의 經濟性を 保障할만한 規模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即 改革過程을 통한 營農規模의 細分化 現象이 改革의 徹底性만으로 克服키 어려운 일임은 明白하다. 例컨데 農地改革前後의 耕作規模別 農家戶數의 變動을 보면 小細農層인 1町步未滿의 構成比가 擴大된 反面 1町步以上인 中, 大農層은 줄어들고 있다.

改革前의 1947年과 改革後의 1953年의 農家構成을 對比해 보면 5反未滿의 細農層이 41.2%에서 44.9%로 0.5~1町步의 小農層이 33.3%에서 34.2%로 各其 늘어난 反面 1町步~2町步의 中農은 18.8%에서 16.5%로, 大農은 6.7%에서 4.4%로 各其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改革으로 인한 農地再分配에서 오는 經營規模의 零細化는 小規模經營의 不利性을 克服키 위한 資本主義的 經營으로의 發展 또는 生産의 組織化를 통해서 이를 補完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改革은 이와같은 生産力의 增進을 위한 補完措置를 缺하고 있었던 까닭에 農民解放이 農業生産力의 革命으로 直結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農地改革以後 再起의 꿈이 부풀었던 이 나라 農民에게 6·25는 傳說과도 같은 荒廢를 떠맡기고 힘에 겨운 또 다른 試鍊을 賦課했다. 그러나 5·16革命政權이 서면서부터 果敢하고 意

產業別 所得成長率의 推移

< 表 1 >

	國民總生産 (10億圓)		所得成長率 (%)	
	第1次產業	第2次產業	第1次產業	第2次產業
1953	203.38	47.40	—	—
1954	219.10	55.05	7.7	16.1
1955	224.06	64.92	2.3	17.9
1956	212.23	73.59	-5.3	13.4
1957	230.57	84.46	8.6	14.8
1958	246.26	90.48	6.8	7.1
1959	243.66	100.13	-1.1	10.7
1960	243.97	107.44	0.1	7.3
1961	268.53	112.03	10.1	4.3
1962	252.37	129.60	-6.0	15.7
1963	270.56	150.37	7.2	16.0
1964	314.31	159.51	16.2	6.1
1965	311.63	194.36	-0.9	21.8
1966	345.91	227.36	11.0	7.0

資料 : 韓區銀行「韓國의 國民所得計定」1967 PP. 174~175

欲에 찬 經濟改革이 連이어 實行됨에 따라 特히 1962年에서 1966年에 이르는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樹立 推進되면서 어느 時期보다도 急速한 經濟成長이 이루어졌다. 卽 農地改革이 끝난 1953年에서 1966年 期間中에 이루어진 國民總生産의 成長率을 보면(表1) 1965年 不變市場價格으로 4,219億원에서 9,138億으로 增加됨으로써 年平均 成長率은 6.2%에 達하고 있다.

한편 第1次産業의 所得成長率의 推移를 時期別로 보면 1953年에서 1957年에 이르는 時期에서 3.3%이던 것이 1958年~1961年 사이의 成長率은 4.0%, 1962年~1966年 사이는 5.5%로 그「뒤편」은 緩慢하나마 持續的인 成長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第1次産業의 主宗을 이루는 農業生産이 諸般 經濟活動의 與件變動에도 比較的 鈍感한 小農에 依하여 擔當되고 있으며 戰爭破壞 이후 微温的인 政策支援下에서나마 實物的 生産基盤이 漸次 安定 되어 왔다는 事實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農業生産은 自然的 條件의 絶對的인 影響과 經營의 零細性으로 말미암아 負의 成長率을 보인 年度가 經濟開發計劃期間인 1962~1966年 期間中에서조차 2個年度가 나타나 있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그에 反해서 第2次産業에 있어서의 成長率을 보면 그 年平均 成長率은 12.1%에 達하고 있어 第1次産業의 그것이 4.4%의 낮은 狀態와 比할때 産業間 經濟成長이 얼마나 不均衡狀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韓國經濟의 持續的 高度成長을 이룩해 나가는데 農村經濟의 開發 向上이란 命題가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67年과 68年兩年の 旱害로 인한 特殊한 경우라고는 하겠지만 70萬%의 外米를 繼續 輸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 例年の 米穀需給 事情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 外米를 導入해야 할 實情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農家戶當 所得은 67年の 경우 都市勤勞者 家口當 所得의 60.1%에 不遇하며 國民經濟의 均衡的 發展이란 政策目標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 또한 國內 大衆購買力이 主로 農村에 뿌리박고 있음을 勘案할때 農家經濟의 不振은 連鎖的으로 國內市場의 밑받침에서 伸長해야 할 輸出産業의 對外競爭力에 限界性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食糧自給度 提高에 의한 國民經濟負擔의 輕減과 農村經濟向上을 통한 均衡的 經濟發展体制의 確立은 우리 經濟에 있어 가장 重要한 政策課題라 하겠다. 이제부터는 根本的으로 停滯된 農業을 成長케 하고 發展하는 農業으로 끌어 올리는 果敢한 政策決意부터 앞서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以上과 같은 視角에서 韓國의 農家經濟를 統計的으로 分析하고 이를 基底로 해서 우리나라 農業經營의 方向과 農家經濟 向上의 길을 提示해 보기로 하겠다.

II 農家經濟剩餘의 吟味

1. 農家經濟 安定狀態의 判別

一般的으로 農家經濟 收支「밸런스」의 差額이 黑字로 나타나는 狀態를 農家經濟의 安定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난날 不況과 窮乏에서 農村을 救出키 위한 經濟更生の 手段으로서 家計費의 節減이라는 節約主義와 自力更生이라는 勤勞主義에서 緣由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農家經濟 收支「밸런스」의 差額이 黑字로 示顯된 農家를 곧 安定된 農家라 할 수 있을까? 差額이 赤字로 示顯 된다는 것은 農家經濟 內部的 運營에 어딘가 缺陷이 있었다는 證在는 되려니와 經濟運營의 拙劣에서 오는 當然한 歸結이라고는 斷定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赤字 示顯의 原因의 所在를 檢閱 分析하는 作業이 더 重要 하다고 본다.

赤字는 여러가지 原因에서 算出되는 것이나 家計費가 稅控除 農家所得에 比해서 클 때 計上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家計費의 構成內容이나 各 農家의 生活水準의 內容이 문제가 될 수 있다. 例컨데 農家의 勞動力이 持續적으로 再生産에 投入되지 못할 만큼 不健全한 狀態에서 家計費를 節減한 나머지 黑字라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農家經濟 運營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農家總所得에서 家計費를 減감한 線에서 黑字가 算出 되더라도 負債利子와 租稅公課 諸負擔金을 差減한 나머지 赤字라면 農家所得에 對한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 諸負擔率을 吟味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全國平均의 戶當農家에 對한 66年度의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 諸負擔率은 (表2)에서 보듯이 經濟剩餘에 對해서 42.14%, 農家所得에 對해서 4.23% 農業所得에 對해서 5.42%이며 耕作地 規模別로 보면 經濟剩餘에 對해서 0.5町步未滿은 負로 나타나 約 6倍나 되고 0.5~1.0町步는 46.03%, 1.0~1.5町步는 49.35%,

< 表 2 > 耕地規模別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負擔額 (戶當平均) 단위: 원

區 分	農業所得 (A)	農家所得 (B)	經濟剩餘 및 損失 (C)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 負擔金 (D)	D/A%	D/B%	D/C%
0.5町步未滿	46,661	83,161	503	2,897	6.20	3.48	▲ 17.37
0.5~1.0	82,712	107,956	8,800	4,051	4.89	3.75	46.03
1.0~1.5	126,312	149,657	14,352	7,083	5.67	4.73	49.35
1.5~2.0	160,976	190,493	22,825	8,548	5.31	4.48	37.88
2.0町步以上	235,784	269,216	59,033	13,359	5.66	4.96	22.62
全 國	101,430	130,176	13,071	5,508	5.42	4.23	42.14

資料 :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1968. P. 59에서 作成

(3) 負擔率 計算에 있어서 被贈收入, 扶助, 補助金, 共濟金 등의 收入은 農家所得에 算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收入은 그 性質上 稅負擔의 對象이 되는 所得이 아닌 때문이다.

1.5~2.0町步는 37.88%로 줄고 2.0町步以上은 22.62%로 더욱 줄어들고 있다.

農家所得에 대해서 보면 0.5町步 未滿이 3.48%, 0.5~1.0町步가 3.75%, 1.0~1.5町步가 4.73%, 1.5~2.0町步가 4.48%, 2.0町步이상은 4.96%이며 農業所得에 대해서는 0.5町步未滿이 6.2%, 0.5~1.0町步가 4.89%, 1.0~1.5町步가 5.67%, 1.5~2.0町步가 5.31%, 2.0町步이상인 5.66%로 農家所得과 함께 耕作規模가 커질수록 負擔率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家計費의 크기나 生活水準에 문제점이 없더라도 黑字 또는 赤字는 農業經營 面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農外 部面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農業所得은 農產物 生産量의 多寡, 農產物價格의 騰落 農業資材 消費量의 多少와 價格등의 諸要因이 相互 結合되어 變動되는 것이며 農外所得도 兼營事業의 景氣變動 그리고 雇傭就勞 機會의 다소와 賃金의 高低에 따라서 영향이 크다.

家所得의 黑字의 原因이 農業所得과 農外所得 어느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意味하는 바도 달라지겠지만 兼業所得을 增大시키므로써 算出된 黑字는 一般的으로 農業經營의 擴大 充實에 使用되지 못하는 傾向이 있으므로 農家經濟의 運營重點이 農業外의 部面에 移行되기 쉽다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黑字는 家計費를 節減하고 生活水準을 낮추어서 計上되는 경우와 積極的으로는 農家所得을 提高 시킴으로써 算出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家計費는 農家勞動力의 再生産에 消費되는 費用이므로 이를 節約해서 黑字가 算出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장 不健全한 農家經濟의 狀態를 뜻하는 것이며 家計部門을 消費經濟 部門이라 해서 農業經營의 末端 部門視 함은 그릇된 생각이라 하겠다.

2. 農家經濟收支「밸런스」의 差異

農林部에서는 全國 1,200戶의 農家에 依賴해서 農家經濟의 調査를 하고 있으므로 그 調査結果를 引用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調査의 對象이 되고 있는 農家は 全國 各地域에 亘하고 있으므로 經營組織도 各樣 各色이며 經營規模도 大小를 包含한다. 그 全國 平均을 보면 67年度 戶當 經營 耕地面積은 <表3>에서 보듯이 2,923.5坪으로써 거의 1町步에 達하고

戶當 田畝別 耕地面積

單位：坪

논	밭	기	타	計
1,729.63	1,160.23	33.64		2,923.50

資料：농림부 前掲書 P.51에서 作成

이 중 논이 1,729.63坪 밭이 1,160.23坪이며 家口當 人員은 6.12人이다. 이를 다시 耕地規模別로 收支「밸런스」表를 作成해 보면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年度에는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農家經濟는 14,159원의 黑字로 나타난다,

< 表 4 > 經營階層別 農家經濟收支 밸런스表 單位 : 圓

經營耕地面積	0.5町步 未滿	0.5~1.0	1.0~1.5	1.5~2.0	2.0町步 以上	全 國
農業租收益	66,493	119,885	181,722	246,144	340,355	150,995
農業經營費	14,569	24,553	41,512	57,589	91,868	34,636
農業所得	51,924	95,332	140,210	188,555	248,487	116,359
農外收入	24,170	12,790	6,479	4,317	7,776	12,650
農外支出	9,458	7,650	2,919	1,020	3,417	6,044
農外所得	14,712	5,140	3,560	3,297	4,359	6,606
被贈扶助神助 其他收入	30,244	25,548	22,822	26,637	29,816	26,505
農家總所得	96,880	126,020	166,592	218,489	282,662	149,470
負債利子및租 稅公課負擔額	2,555	3,139	5,924	8,103	12,807	4,825
可處分所得	94,325	122,881	160,668	210,386	269,855	144,645
家計費	88,798	110,212	144,650	170,535	221,499	127,667
其他支出	1,285	2,165	3,777	5,188	4,786	2,819
農家經濟剩餘	4,242	10,504	12,241	34,663	43,570	14,159

資料 : 농림부 『농가경제 조사 결과 보고』 1968 P. 59

67年度는 旱害로 말미암아 凶作이었으나 農業租收入이 前年對比 14.9%, 農業所得이 14.7%, 可處分所得이 16.0% 증가했고 家計費 16.2% 其他支出 64% 증가로 黑字는 36.1% 증가에 그치었다.

그러나 이는 前年の 經濟剩餘가 극히 不振하여 前年對比 8.3% 增에 不過했던 까닭에 相對的으로 67年度에는 增加率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參考로 65年度는 4,762원, 66年度는 13,071원의 黑字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67年度의 農家經濟는 黑字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곧 農家經濟의 安泰와 堅實을 示顯해 주는 것은 아니고 當該年度의 經濟活動 成果와는 無關係한 외부로 부터의 補充的 收入(所得이라고 할수 없는)이 26,505원이나 計上되므로써 算出된 黑字라는 것과 農業所得만 가지고는 家計費를 充足 시키지 못하고 農業所得의 約 1/2에 가까운 農外所得이 必要 하다는데 問題點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4>에서 보듯이 첫째로 經營耕地面積이 큰 農家일수록 剩餘도 따라서 크고 둘째로 經營耕地面積이 작은 農家の 黑字는 農業所得 보다도

農外所得에 原因이 있으며 셋째로 經營面積이 작은 農家에서는 家計費에 比해서 農業所得이 적은데 比해 經營面積이 큰 農家에서는 農業所得 만으로도 家計費를 充足 시키고 오히려 剩餘를 남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農業所得에 依한 家計費의 充足率을 보면 (表5) 全國 平均으로는 91.14% (66年度는 92.31%)로써 우리나라 農家에서는 一般的으로 農業所得 만으로는 家計費의 約 92%를 「커버」할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農業經營 만으로는 農家經濟를 維持해 나가기가 不可能한 實情이며 兼業收入을 加算하고서야 겨우 生活를 꾸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卽 우리나라의 농가는 專業農家로서는 到底히 自立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示顯해 주고 있다.

< 表 5 > 農業所得의 家計費 充足度 單位: 원

區 分 耕地的規模別	農 業 所 得 (A)	家 計 費 (B)	(A) - (B)	充 足 率
				B/A
全 國	116,359	127,667	▲ 11,308	91.14
0.5町步 未滿	51,924	88,798	▲ 36,874	58.47
0.5 1.0	95,332	110,212	▲ 14,880	86.49
1.0~1.5	140,210	144,650	▲ 4,440	96.93
1.5~2.0	188,555	170,535	18,020	110.57
2.0町步 以上	248,487	221,499	26,988	112.18

資料: 농림부 前揭書 P.71

한편 5段步 未滿 農家の 農業所得으로는 家計費의 97%정도를, 그리고 1.5町步이상의 농가가 되고서야 農業所得은 家計費를 充足하고도 剩餘가 發生하므로 이 階層의 농가에서는 兼業所得이 不必要한 셈이 되나 1.5町步 까지의 농가에서는 農業所得外에 兼業收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벼單作經營을 中心으로한 農家は 적어도 2정보 가까운 經營面積을 갖고서야 農業所得만으로 家計費를 充足시킬 수 있을 것이다. 1.5町步 未滿의 농가의 흑자가 家計費를 節約해서 얻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 黑字의 原因은 兼業所得에 있다 할 수 있으나 그것도 被贈收入이나 扶助等 農家の 經濟活動의 成果가 아닌 外部로 부터의 補充的인 收入에도 未及한 程度이므로 만약 이러한 補充的 收入이 없었더라면 1.5町步 까지의 농가는 大部分 赤字를 免치 못했을 것이다.

3. 農家經濟剩餘의 原因

우리가 지금까지 考察해 본 農家經濟收支 「밸런스」表는 黑字農家和 赤字農家를 平均한 것이므로 黑字農家の 흑자액이 적자농가의 적자액을 相殺해 버리는 結果가 되었다. 그러므로

小規模經營의 農家層에서도 若干이나 黑字가 示顯될 수 있었다. 그러나 經營面積의 大小에 不拘하고 여러가지 原因에서 積자가 나타나는 農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農家全體에서 積자를 낸 農가가 얼마나 되는지 推算해 보는 것이 우선은 緊要하겠으나 이에 對한 資料를 發見치 못함으로 여기서는 全國平均 戶當農家 經濟剩餘를 <表6>에서 보기로 한다.

< 表 6 > 年度別 耕作規模別 農家經濟剩餘

단위 : 100원

耕作規模別 年度別	0.5町步 未滿	0.5~1.0	1.0~1.5	1.5~2.0	2.0町步 以上	全 國
1962	20.2	73.2	123.5	134.1	282.9	10.16
1963	7.4	48.5	157.0	294.1	549.0	11.06
1964	28.8	146.3	164.4	473.8	726.2	17.94
1965	▲ 32.1	6.0	76.7	189.3	277.9	4.76
1966	5.0	8.0	113.5	228.2	590.3	13.07
1967	42.4	15.0	122.4	346.6	435.7	14.15

資料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PP 94~97 1967

소 『농가경제 조사 결과보고』 P 59 1968에서

이에 따르면 65年度에 0.5町步未滿 農家에서 3,200원의 積자를 낸 것을 除外하고는 62年度 以後 67年度까지 積자능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흑자능가의 흑자액과 적자능가의 적자액이 相殺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흑자라 하더라도 1정보까지는 大体로 10,000원 未滿이고 2정보 이상이라 할지라도 80,000원에 未達한 흑자가 一般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經營面積이 작은 農家は 黑字額이나 赤字額이 적을 것이나 反對로 規模가 큰 農가의 그것은 金額도 커질 것이다.

이는 經營面積이 작은 農가에서는 농업이 大体로 自給生産 정도로서 賃金收入이 크고 支出을 收入의 크기에 적응시키려는 傾向이 뚜렷 하므로 흑자인 경우나 적자인 경우나 그 額은 比較的 적다 할 수 있다. 그러나 大規模 專業農家에서는 農産物이나 農業資材의 價格變動의 影響이 收支面에 크게 作用하므로 적자 또는 흑자 어느 경우에도 그 額이 커진다. 특히 中上層 農家에서 乳牛 및 大農具等의 導入이 活發해감에 따라 이의 償却費가 農産物價格의 低落下에서는 負擔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흑자나 적자간에 그것이 어느 부문에서 어떠한 理由로 發生 했는가를 추궁하는 것이 또한 重要하다 할 것이나 大規模 專業農家에서는 農外部門이나 家計部門이 原因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다.

첫째로 실사 家計費가 적자의 要因이라 하더라도 家計가 放漫했었다는 結論을 一般論으로써 내 세운다는 것은 이른다. 참고로 67年度 農家家口員 1人當 平均家計費 20,861원을 同年의 全都市의 勤勞者家口의 1人當 家計費(家口當 人員數 6.1人) 34,344원과 比較해 보

더라도(表7) 농가가 家計費 支出에 放漫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都市 勤勞者의 生活內容과 比等한 支出을 했더라면 大部分의 農家經濟는 적자가 되었을 것이다.

< 表 7 > 1人當 家計費 單位 : 원

農 家 家 口 (A)	都 市 勤 勞 者 家 口 (B)	(A) / (B) %
20,861	34,344	60.74

資料 : 同上

- ※ 1. 家口當 人員數는 各其 6.1人
- 2. 都市勤勞者家口 1人當 家計費 算出根基 ₩ 2,862×12=₩34,344

둘째로 經營面積이 5段보와 1정보사이의 농가에서는 農業所得이 家計費에 未及하다는 事實과 1정보~2정보의 농가에서도 흑자농가는 農業所得이 家計費를 上廻하지만 적자농가에서는 農業所得이 家計費를 下廻한다는 점이다. 적자가 放漫한 家計支出에 基因한 것이 아니라면 經營面積이 큰 階層에서는 家計費를 「커버」시킬 수 없었던 農業所得의 낮음 그리고 經營面積이 작은 階層에서는 農外所得의 적음이 적자의 直接的인 原因이 될 것이다.

흑자농가와 적자농가 사이에 農外所得에서 大差가 있는 것은 比較的 安定된 有利한 就勞. 就職의 機會를 捕捉하고서 많은 農外所得을 얻고 있는 농가와 그렇지 아니한 농가사이에 經濟上의 「罅」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Ⅲ 農家の 所得形成과 그 環境

1. 農家所得의 構成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構成 되거니와 그 比率은 經營規模에 따라 달라진다. 經營規模가 작은 농가에서는 農外所得의 比重이 높아지지만 反對로 經營規模가 큰 농가에서는 農業所得의 比重이 높아진다. <表8>에서 우리나라의 一般農家에 對해서 67年度

< 表 8 > 耕地規模別 農家所得 單位 : 원

區	全 國	0.5町步 未滿	0.5~1.0	1.0~1.5	1.5~2.0	2.0町步 以上
農業所得	116,359 (77.9)	51,924 (53.6)	95,332 (75.6)	140,212 (84.2)	188,555 (86.3)	248,487 (87.9)
農外所得	33,111 (22.1)	44,956 (46.4)	30,688 (24.4)	26,382 (15.8)	29,934 (17.7)	34,175 (12.1)
農家所得	149,470 (100)	96,880 (100)	126,020 (100)	166,592 (100)	218,489 (100)	282,662 (100)

資料 : 농림부 前掲書 P.76

農家所得의 構成을 보면 農家所得의 77.9%를 農業所得이 占하고 있고 農外所得이 22.1%라는 構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또한 農家所得도 經營規模가 클 수록 加增한다는 一般의인 傾向을 그대로 示顯해 주고 있다.

全國의 농가를 農家所得의 大小로 分類해 보면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所得 50,000원에서 100,000원 階層과 100,000원에서 150,000원 階層이 各其 29%를 차지하고 150,000원에서 200,000원 階層이 16%를 차지하여 결국 5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階層이 全體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

農家所得 150,000원이 우리나라 농가의 所得水準을 代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을 合算한 것임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 表 9 >

耕地面積과 農業所得과의 相關表

單位 : 원

農家所得	耕地面積										計
	未 滿 100,000	100,000 ~ 150,000	150,000 ~ 200,000	200,000 ~ 250,000	250,000 ~ 300,000	300,000 ~ 350,000	350,000 ~ 400,000	400,000 ~ 450,000	450,000 以 上		
3段步未滿	13	43	12	4	1	—	1	—	—	1	75
3 ~ 5	7	69	46	7	4	—	—	—	—	—	133
5 ~ 7	7	57	55	15	6	1	—	—	—	—	141
7 ~ 9	4	36	51	22	6	3	2	1	—	—	125
9 ~ 11	5	25	36	25	13	5	2	1	—	1	113
11 ~ 13	1	12	20	21	13	6	1	1	1	—	76
13 ~ 15	1	2	12	17	7	6	3	—	—	1	49
15 ~ 17	—	2	8	7	10	4	—	3	1	—	35
17 ~ 19	—	1	3	4	8	3	5	1	—	2	27
19 ~ 21	—	1	1	5	2	8	3	2	1	—	23
21段步以上	—	1	4	9	11	9	8	10	1	8	61
計	38	249	248	136	81	45	25	19	4	13	858

資料 : 농림부 『농가경제 조사 결과보고』 1968 P.77

이를 다시 月收로 換算하면 稅包含 12,500원 정도의 「샐러리맨」의 所得과 比等하게 된다. 이러한 比較만으로는 농가도 그다지 低收入이 아닌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농가는 都市의 勤勞者家口와는 달리 농업에 그리고 兼業에 많은 家族이 就業하고 있으므로 就業者 1人當 農家所得과 比較해 보면 全國平均 農家の 就業者는 3.2人이 되므로(表10) 農家所得 150,000원을 就業者 1人當으로 환산하면 年間 50,000원에 未及하며 月收로는 稅包含 4,680원의 「샐러리맨」과 比等하게 된다. 더구나 農家所得中 農業所得의 比重이 낮아지고 農外所得의 比重이 높아지는 것이 二次大戰後 農家經濟의 特色있는 動向이다.

< 表 10 > 家口員의 就業狀況 67年度 單位：人

家口員	營家從事者			非營從事者		
	計	自家勞動	雇傭勞動	計	他職業從事者	無職者
6.22	3.12	3.04	0.08	3.10	0.10	3.00

資料：농림부 『농가경제 조사 결과보고』 1968 PP. 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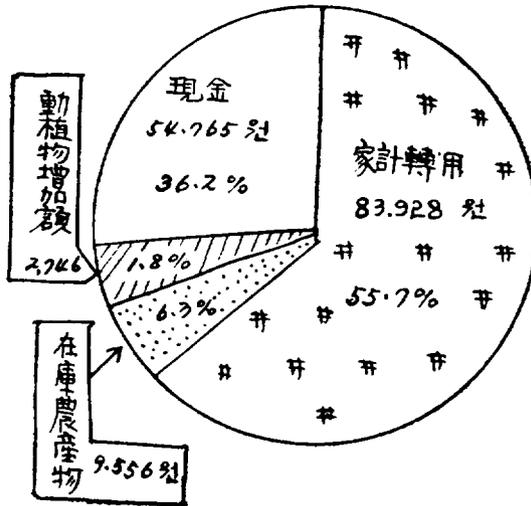
2. 農業收入과 農産物의 商品化

農業粗收益은 1年間의 農業生産의 結果로서 얻어진 總收入額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各種作物 養蠶 養畜 등의 農畜産物의 販賣收入은 勿論 家計에 消費된 農畜産物의 評價額과 物物交換에서 引渡된 農畜産物의 評價額, 動植物의 增加額, 農産物의 年度末 增加額 등이 計上되어 있다. 全國平均의 67年度 農業粗收益을 叙上의 形態로 分類해 보면 <圖2>와 같다.

農業粗收益 150,995원中 現金收入은 54,775원으로서 粗收益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農業生産이 商品生産 보다도 自給을 目的으로 經營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勿論 이는 全國農家の 平均이므로 地域的 經營組織的 農家の 差異가 平均化 되어 있는 것이며 實은 農家에 따라서 收入源泉構成도 千差萬別이라 할 수 있다.

農業粗收益의 形態別 構成 (農業粗收益 150,995원)

< 圖 2 >



<表11>에서 보면 農業粗收益의 51.8%를 米穀類가 占하고 麥類의 12.2%, 蔬菜類의 5.8% 順으로 되어 있는데 米麥類만으로 6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農家經濟에서 米麥類作收入의 重要性을 示顯해 주고 있다. 그러나 現金收入率을 보면 米穀은 粗收益率에서 보다도 比

重이 낮아지고 反對로 蠶絲 果實 特用作物 養畜 畜產物 農產加工 蔬菜 등의 收入比重은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項目은 商品化率이 높기 때문이다. 同一生産量일지라도 商品化率과 農產物價格의 變動으로 因하여 農業現金收入의 크기도 變動되는 것인데 農業生産의 各部門別 農業粗收益의 貨幣化率을 보면 蠶絲가 100% 特用作物 果實이 各各 95.6%, 99.4%로 높

< 表 11 > 收入源泉別 農業收入 單位: 원

	農業粗收益	粗收益中 構成比 %	粗收益中 現金收入	現金收入 構成比 %	粗收益中 家計轉用	粗收益에對한 現金收入比%	
農 作 物 收 入	米 穀 類	78,265	51.8	29,264	53.4	49,001	37.3
	麥 類	18,938	12.2	4,386	8.0	14,552	23.2
	雜 穀 類	2,344	1.6	751	1.3	1,593	32.1
	豆 類	4,803	3.2	2,381	4.4	2,427	49.7
	庶 類	4,638	3.0	1,589	3.0	3,049	34.3
	菜 蔬 類	8,803	5.8	5,391	9.9	3,412	61.2
	特用作物	3,277	2.2	3,132	5.7	145	95.6
	果 實 類	1,548	1.2	1,538	3.0	10	99.4
	其他農作物	2,304	1.6	431	7	1,873	18.7
	在庫農產物	9,556	6.4	—	—	—	—
養畜, 畜產物	5,097	3.4	4,458	8.2	639	87.4	
養 蠶	760	5	760	1.4	0	100.0	
農 產 加 工	495	4	371	6	124	74.9	
大動植物 增價	2,746	1.9	—	—	—	—	
其 他	7,416	4.8	313	4	7,103	4.2	
合 計	150,995	100.0	54,765	100.0	83,928	36.3	

고 養畜 畜產物 農產加工이 70%이상인데 比하여 米穀類는 37.3%, 麥類는 23.2%에 不過하다. 이와같이 貨幣化率이 낮은 부문은 生産物中에서 自家消費에 轉用하는 比率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農業粗收益의 貨幣化率이 높은 부문에서는 商品生産이 進展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하다.

67年度 全國平均의 米麥蔬類의 商品化率은 <表12>에서 보듯이 粟쌀이 55.29%, 참쌀 39.70%, 보리쌀 31.96%, 밀 23.30%, 雜穀 26.17%, 豆類 38.02%, 庶類 30.83%로서 商品化率이 大体로 낮다. 이를 다시 經營面積에 따라 살펴보면 <圖3>에서 보듯이 經營階層이 높을수록 商品化率도 높아가는 傾向과 함께 主産地域일 수록 商品化率이 높아가는 傾向이 있다. 商品化率의 高低는 經營階層 家族數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서 零細農家에서는 自家食糧의 生産에 重点을 두게 되므로 商品化率도 낮으나 大規模經營農家에서는 販賣에 重点을 두므로 商品化率은 一層 提高된다.

따라서 主産地의 大規模經營 農家에서는 生産量도 크거니와 商品比率도 높다. 이러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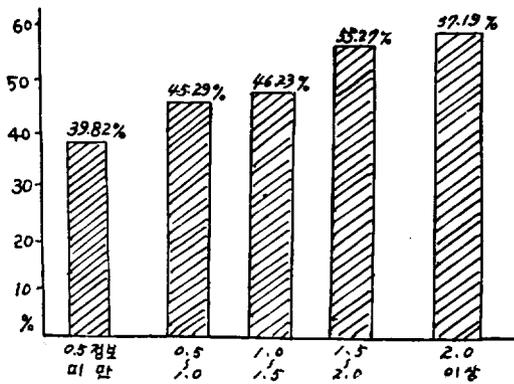
< 表 12 > 主要農産物 商品比率 單位 : %

구 모 별	곡 종	멥쌀	참쌀	보리쌀	밀	좁쌀	수수쌀	옥수수	콩	팥	녹두	고구마	감자
全 國		55.29	39.70	31.96	23.30	16.52	17.07	44.92	35.92	38.87	38.27	34.71	26.95
0.5町步 未滿		39.82	27.79	26.27	28.48	13.35	32.67	6.66	23.93	33.91	27.54	33.15	25.63
0.5 ~ 1.0		45.29	34.59	25.76	19.33	21.50	17.14	31.53	36.90	34.61	30.81	29.87	17.29
1.0 ~ 1.5		46.73	45.87	37.11	24.95	17.86	12.78	45.50	40.31	45.46	49.48	27.75	28.77
1.5 ~ 2.0		55.27	30.90	28.06	16.69	13.42	7.07	62.97	28.23	35.77	47.37	41.25	28.01
2.0町步 以上		57.19	40.73	44.72	28.83	18.50	33.54	34.02	36.82	39.61	27.81	55.94	43.12

資料 : 농림부 「농가경제 조사 결과보고」 1968 PP. 106~108

※ 商品比率 = (販賣量 + 租稅公課 + 搗精料) ÷ 生産量 × 100

< 圖 3 > 멥쌀의 商品化率



로 市場에 出廻되는 大部分의 쌀은 家口數로 보면 僅少한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上層農家의 販賣米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最近의 傾向으로 注目할만한 것은 商品比率이 높은 農産物生産의 進展이다. 蔬菜類를 例로 들어 61年을 基準으로 植付面積의 推移를 살펴보면 <表 13>에서 보듯이 商品比率이 높은 당근은 67年에 와서는 61年보다 4배이상

과, 호박, 토마토는 2배이상으로 증가한 反面 商品比率이 낮은 토란, 미나리, 우엉등은 감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雜穀을 보더라도 總播種面積이 64年에 219,337정보, 65年에 216,337정보, 66年에 171,369정보로 漸減하고 조는 64年에 138,331정보, 65年에 125,234정보, 66年에 96,758정보로 減少하고 있다. 農業生産이 이처럼 商品生産으로서의 性格이 濃厚해감에 따라 農家經濟의 商品經濟化도 發展되기 마련이다.

농민은 商品生産者로서의 性格이 濃化해지고 農家經濟의 商品經濟化는 農家經濟와 市場과의 紐帶가 굳어져가는 證在로서 그만큼 市場의 變動이 農家經濟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市場의 變動에 對應해 나가기 위해서도 농가는 經營管理와 技術改善에 對한 熱意를 一層 高揚할 것이며 新作物의 導入과 植付轉換도 이러한 動向을 反映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농가는 經營成果의 客觀的 分析이 必要하다.

< 表 13 >

菜蔬播種面積推移

單位：町步

	무 우	배 추	양 배 추	파	양 파	마 늘	오 이	호 박	참 와
1961	35,507	32,410	1,043	1,647	2,419	7,465	2,784	2,851	4,095
1962	35,797	34,187	904	2,168	1,665	7,869	3,194	6,244	4,393
1963	34,903	32,861	943	2,345	1,125	7,520	3,358	6,453	4,690
1964	38,135	35,509	1,057	3,621	1,821	8,895	4,611	9,434	5,820
1995	41,578	39,039	1,517	3,546	2,720	8,790	4,639	7,739	6,042
1966	42,218	39,131	1,633	3,708	2,867	10,553	4,782	7,411	6,184
%	118	120	156	230	118	141	171	259	151

	수 박	가 지	토 마 토	고 추	미나리	시금치	우 영	토 란	당 근
	2,351	1,071	1,103	14,854	512	1,080	61	106	5
	2,441	1,073	1,067	16,461	541	1,147	92	103	—
	2,676	1,171	1,174	16,083	396	981	46	96	—
	3,826	1,732	1,530	19,407	262	383	33	37	—
	4,904	4,217	2,326	19,579	541	903	80	85	194
	4,037	1,847	2,217	23,148	273	1,037	55	50	218
	171	172	201	156	53	96	90	47	436

資料：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67. PP. 222~225

※ %는 1961年 基準, 1966年 播種面積인

3. 農業經營費의 構成

農業經營者는 農業粗收益에 對應되는 一切의 經費이므로 肥料, 飼料, 農藥, 諸材料 光熱 動力 農用被服등의 流動인 經費뿐만이 아니라 建物 大農具 大動物 植物등의 減價償却額과 物物交換에서 收得한 農業用資材의 評價額도 計上되며 中間生産物 例컨데 누에고치 生産用 自家產 뽕잎, 水稻作用綠肥, 自家生産 飼料등은 算入하지 않는다. 이들 中間生産物은 産物의 生産費 算出時에는 評價算入하나 農業所得算出時에는 農業粗收益과 農業經營者에 同時에 同一 價額으로 推計 하더라도 結局은 計上하지 않을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雇傭 勞動에 對한 支給勞賃(現物支給分에 對한 評價額包含)은 農業經營費에 計上하나 家族 勞動에 對한 評價勞賃은 計上하고 있지 않다.

農業經營費의 構成을 全國 平均으로 살펴보면 <表14>에서 보듯이 約 350,000원의 農業經營費 中에서 雇傭勞賃이 28.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肥料代 24.7%, 賃借料 및 修理費가

17.8%, 減價償却費 4.4%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肥料代를 水稻段步當 平均 消費量으로

用途別 農業經營費
< 表 14 >

雇傭勞賃	9,791원	28.8%
種 苗	799원	2.0%
肥 料	8,631원	24.7%
農 藥	936원	2.6%
農 具 費	593원	1.7%
營農光熱費	154원	0.4%
養畜. 養蠶費其他	2,780원	7.9%
賃借料및 修理費	6,211원	17.8%
搗 精 料	3,003원	8.6%
其他農業支出	311원	0.8%
減價償却費	1,541원	4.4%
在庫資產資材減	114원	0.3%
合 計	34,864원	100.0%

資料: 農林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水稻作 1段步當肥料消費量

< 表 15 > 單位: kg

1. 無機質	35.2
窒素質	20.2
尿 素	15.9
硫 安	4.0
鹽 安	0.3
磷酸質	6.3
熔 成	0.1
重過石	6.2
苛里質	3.1
鹽化苛里	3.0
硫酸苛里	0.1
複合肥料	5.5
複合肥料	4.6
配合肥料	0.6
組合肥料	0.3
2. 石 灰 質	0.4
3. 矽 酸 質	0.5
4. 有機質肥料	316.1
추구肥	265.5
綠 肥	24.1
山野草	3.9
廣 類	16.3
人糞尿	5.3
其 他	0.9

資料: 農林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68. P. 474~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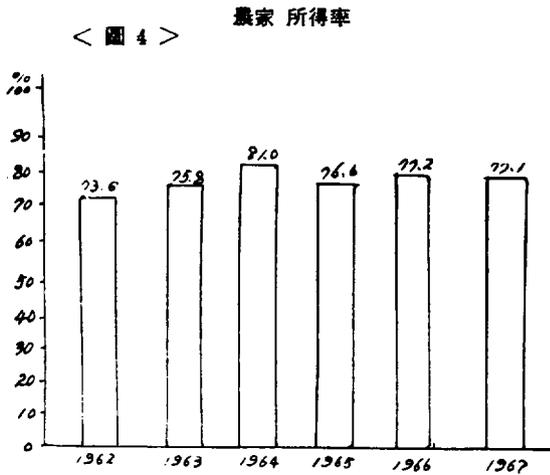
보면 < 表 15 > 와 같다.

농가의 肥料消費는 最近 硫安이나 過磷酸石灰等의 從來의 單肥에서 複合肥料로 轉換되어 가고 있고 尿素 熔成磷肥등의 새로운 肥料의 進出도 顯著하다. 最近의 農業生産의 特色은 商品作物植付와 결들여 販賣用 畜産의 振興인데 이러한 動向과 併行하여 肥料 農藥 飼料등의 購入量도 加增되고 動力機械의 導入도 활발한 傾向인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經營의 發展은 經營面積의 擴大를 相伴게함이 없이 經營集約化 方向으로의 轉換이 特徵이리 하겠다.

經營耕地 一段步當의 農家資材投下量을 보면 66 年에 9원48전이던 것이 67년에는 9원 75전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念頭에 두고 農業所得率의 推移를 보면 < 圖 4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最近 數年 踏步狀態에 있다는 것을 示顯해 주고 있다. 所得率은 投下資



材量과 農業生産量과의 相對關係 및 資材價格과 農産物價格과의 相對關係의 두가지 關係의 結合으로 움직인다. 所得率이 低下되는 경우에는 資材의 投下量이 增加하는데 比例해서 生産量이 增加하지 않거나 資材價格에 對해서 農産物價格의 率이 相對的으로 惡化되었거나 또는 以上 두가지 要因이 하나로 結合되었거나를 말해주는 것이다.

4. 農外收入과 農業의兼業化

農外所得이 農家所得中 約 22%를 차지하고 있다 함은 이미 <表8>에서 보아 왔거니와 農外 所得을 自營兼業 收入과 兼業勞賃 收入 그리고 財產利用 收入으로 分類하고 이를 全國 農家 平均으로 보면 <表16參照> 農外收

< 表 16 > 收入源泉別 農外收入 單位 : 圓

	總 額	自營兼業收入	兼業勞賃收入	財產利用收入
全 國	39,155	12,650	13,304	13,201

入總額 39,155圓中 各其 占하는 比率은 비슷하다.

自營兼業收入에서는 商工 鑛業收入이 6,500圓 정도로 農外收入 全體의 16.6%, 被贈送金 補助 其他가 9,643圓으로서 約 2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勞賃收入이 兼業에 차지하는 比重이 가장 큰데 이는 農家經濟가 점차 貨幣經濟 過程에 對한 密着度를 나타내는 것이며 農外收入 全體의 82%를 現金收入이 차지하고 있는 점도 農業收入에서 現金部分이 36.2%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는 對照的이다. <圖1 參照>

그리고 農外收入中 勞賃棒給收入의 比率은 經營規模가 작을수록 커진다. 工場이나 會社에서의 賃金收入을 家計에 보태지 않고 自家의 農作業도 거이 돌보지 않는 他産業從事者가 증가 가족중에 增加하고 있다. 이는 工場의 分散, 地方都市의 發達등으로 就勞의 機會가 鈍하게나마 增加되고 있다는 점과 버스, 道路의 發達로 通勤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原因이 되겠지만 經營面의 觀點에서도 機械 農藥의 普及등 勞力을 절약하는 技術이 進展됨에 따라 이들의 農業勞動力을 그다지 期待하지 않고 있다는 傾向을 말해주는 것도 되겠다.

韓國의 兼業農家中에는 地主나 山林經營者, 商人등과 같은 形態로 이미 어느 程度 부루조

아화된 農家도 적지않게 存在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經營面積은 比較的 작을 것이므로 零細農家中에는 一部 그러한 농가도 包含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3정보 이상의 農業規模가 되면 家族努力만으로 經營하기에는 너무나 甚한 限界에 達한다. 그러므로 그 以上の 土地集中이 行해 질때 그 농가는 점차 地主化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事實로서 다음과 같은 推定을 할 수 있다.

即 농가가 농가로서 出發할 경우 5反以下の 經營일 경우에는 농가로서 上昇할 可能性이 적다. 이러한 농가는 오히려 兼業에 主力을 두어 生活維持를 目的이 有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좀더 큰 經營에서 出發하면 一層의 勞力の 結果로서 多少의 蓄積을 함으로써 上昇이 可能하다. 그때는 他의 零細耕地를 借入해서 經營을 擴大한다는 形式으로 經營을 크게 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經營擴大의 運動은 2정보 乃至 3정보 정도로 그치게 된다. 왜냐하면 以上の 面積은 지금의 우리 나라의 農業技術로서는 雇傭勞力에 依存하지 않고는 經營할 수 없으나 元來가 우리 나라의 농업은 一般的으로 농업에서 얻어지는 所得이 通常의 勞賃水準보다 낮으므로 雇傭勞賃을 支給하고서는 經營은 「마이너스」는 되어도 「플러스」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가는 自家勞力으로 經營可能한 限度에 이르면 그때는 經營의 擴大를 中止할 것이다.

設使 많은 농민이 그런대로 土地에 固着하고 農業을 營爲한다 해도 이는 다만 農業外의 「엠프로이넨트」가 相對的으로 적고 農業을 떠나서는 生活이 困難해 진다는 매우 經濟的인 事情에 基因하는 것으로서 決코 強制的으로 土地에 緊縛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IV 農業經營成果의 分析

1. 農業經營規模의 指標

最近의 農林部의 調査에 따르면 농가 1戶當 經營面積은 0.90정보이며 1정보未滿의 農家戶數가 全体農家の 67.6%에 達한다 함은 앞서 밝힌바 있거니와 (表17) 農業所得의 水準이 낮고 兼業農家가 많은 것은 小規模農家가 많다는 사실과도 密接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經營規模란 元來 生産手段, 勞動對象, 勞動力이 結合된 綜合的인 規模라는 意味를 갖는 것이므로 農業生産에서는 土地는 가장 基本的인 生産手段인 理由로 經營規模를 나타낼 경우에 耕地面積이 重要한 指標가 된다는 것을 否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經營組織이나 技術水準如何에 따라서는 面積이 작아도 보다 많은 資本을 投下할 경우에는 耕地面積만으로 農業生産의 規模를 나타낸다 해도 그것은 實態를 反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해서 耕地面積의 크기를 가지고 농가의 經營規模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란 經營組織과 經營條件이 거이 比等한 比較的 狹少한 地域에 限한다고 보아야 한다.

< 表 17 >

66年度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및 面積(戶當)

單位：町步

總 數		1 段 步		1~3		3~5		5~1町步	
戶 數	面 積	戶 數	面 積	戶 數	面 積	戶 數	面 積	戶 數	面 積
2,540,274	2,208,652	22,654	5,266	357,557	78,247	463,654	180,688	818,121	614,374

< 續 >

~1.5		1.5~2.0		2.~3.0		3.0町步以上	
戶 數	面 積	戶 數	面 積	戶 數	面 積	戶 數	面 積
434,923	536,506	222,034	384,228	136,713	334,165	34,598	137,220

資料：『농림통계연보』1967. PP. 54~55에서 作成

經營規模가 同一한 1정보 일지라도 米穀의 單作農家와 果樹農家와는 經營規模가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그 地方 地方의 農業經營의 특징에 따라 經營規模의 指標를 달리해야 한다.

假令 米穀의 單作地帶에서는 耕地面積의 大小로 농가의 經營規模를 어느정도 正確히 알 수 있으나 果樹地帶에서는 果樹園面積을 또는 酪農經營 相互間의 比較에서는 乳牛頭數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업이 商品生産으로서의 性格이 濃厚해가고 전문적 經營에의 分化가 이루어져가며 集約農業이 發展해 감에 따라서 土地面積은 農業經營規模의 忠實한 指標가 되지 못 한다.

經營規模를 나타낼 때에 무엇이 統一的인 比較指標로서 적절한가 하면 ① 勞動者의 數 ② 牛馬의 數 ③ 農具의 台數 ④ 土地價格 ⑤ 全投下資本額 ⑥ 農業粗收入額 ⑦ 農業現金收入額 등 여러가지 提案이 있다. (4)

工業이나 資本家的 農業經營이라면 勞動者數나 全投下資本額 등으로도 適當하겠지만 家族農業經營인 경우에는 不適當하며 牛馬나 農具의 數도 土地가 豊富한 粗放農業이 一般的인 곳에서는 有効할지 모르나 우리 나라의 實情으로는 適切치 못하다. 土地價格도 현재로서는 不合理한 價格이므로 指標로서는 不適當하여 결국 農業粗收入額과 農業現金收入額의 多寡를 重視함이 適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農業粗收入의 多寡는 耕地面積의 大小뿐만 아니라 농업의 集約化로 인한 生産의 增大도 反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업의 商品化가 進展되나 가면 農業現金收入의 多寡도 適當한 指標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一連의 指標中 어느 한개를 採하고서 농업의 經營規模를 남김없이 부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업의 商品生産과 經營의 集約化라는 動向으로 볼때 經營耕地面積은 아니라 農業粗收入額과 農業現金收入額에도 着眼해서 이들을 綜合考察해야 할 것이다. 經營耕地와 勞動力과의 結合이라는 觀點에서 經營規

(4) 喜多克乙「農家經濟의 改善と簿記의 利用」1959, P. 72

模倣 檢討해 보면 (表18) 農業從事者 1人當 經營耕地面積 및 同權付延面積에서 經營面積이 작은 농가와 큰 농가와 큰 差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經營面積이 큰 농가에서는 役畜이나 農機具 등으로 勞動力이 裝備되어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表 18 > 經營耕地와 勞動力의 結合 單位：坪

	經營耕地面積 (A)	利用面積 (B)	營農從事者1人當		耕地利用度 B/A
			耕地面積	利用面積	
全國平均農家	2,923.50	3,481.82	937.02	1,116	119.8%

2. 農業生産力の 指標

우리나라의 농민의 大部分은 零細한 經營을 해왔고 過重한 小作料에 緊縛되어 왔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농업의 近代的 技術이 正常的으로 發達될 리 없다.

첫째로 농민은 極히 貧弱한 경제적 基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新技術을 採用할 만 한 投資餘力이 脆弱할 뿐 아니라 金融을 통한 資金의 導入이란 것도 原則적으로 不可能하다.

둘째로 농업에 있어서는 新技術 특히 勞動手段에 있어서의 新技術은 一定以上の 經營面積없이는 採用이 不可能하다. 트랙터(tractor), 콤파인(combine) 비행기 등 例컨데 先進國에서 使用한다는 機械的 技術은 5段步~1정보의 經營으로서는 念頭도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농업에서도 脫穀調製 등의 加工過程 및 揚水와 같이 어느 정도 共同으로 利用 가능한 過程에서 小規模의 機器를 使用하고 있기는 하나 基幹的인 農耕의 過程에서는 오늘날도 다름없이 쟁이, 삽, 낫과 같은 道具에 依存하는 勞動力이 그 基幹을 이루고 있다. 이 點에 關한 限 幾百年來로 큰 進보는 없었다 해도 無妨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농업에 技術的 進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농업이 商品經濟에 깊이 파들어 가면 갈수록 農業生産力이 커지므로 販賣餘力이 擴大되지 않는 限 農業經營도 成立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農業技術은 主로 肥料 또는 品種改良이라는 勞動對象의 面에서 혹은 技術이라기 보담 技能이라고 불리워 次要할 정도의 耕作改善의 面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이러한 技術은 勞動手段面에서의 技術과는 달리 많은 資金을 固定시킬 必要가 없으므로 小規模經營에서는 적당한 技術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로서는 反當收量을 높이거나 그러므로써 間接적으로 生産力을 높이는 結果는 될지 모르나 決코 勞動手段과 같이 直接的으로 生産力을 높이는 意義는 갖지 못한다.

그러한 歪曲된 形態가 아니고서는 技術의 진보를 볼 수 없는 韓國農業의 小經營에 固定된 米價라불한 모습이 端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技術이 歪曲進歩됨으로 말미암아 韓國의 농업에 여러가지 課題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農業生産을 勞動力에 依存시킴으로써 그만큼 농민에게 苛酷한 勞動을 強要한다. 農業生産은 季節的인 性格을 갖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穀物을 主로 하는 單純한 植付情或下에서는 이러한 發繁期의 「리이크」를 機械力으로 崩壞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農繁期에는 老人, 婦人, 어린이 할 것 없이 全 家族勞力이 動員되고 그러한 勞動이 長時間 繼續될 때 過勞가 농민에게는 不可避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

둘째로 이러한 狀況에서는 당연히 農業生産力을 低下시킨다. 生産力이 低下되면 農產物 價格이 그만큼 上昇되어야 할 터인데도 主要消費者인 勞動者들의 低賃金에 規制된 貧弱한 購買力으로 因하여 또 한 편으로는 小農民間의 相互競爭으로 因하여 極히 低水準에 停滯되고 있는 것이다. 外國으로부터의 穀物의 導入도 이에 拍車를 加한다.

이러한 低生産力과 低價格과의 사이에서 그들의 生活水準을 最低線으로 내리כות는 以外에 生存의 方法이 乏缺비린 位置에 놓여 있다 하겠다.

農業經營의 內容이 健實하고 有望하다는 것은 그 경영의 生産力의 高低와 높은 生産力을 實現할 수 있는 生産手段 勞動對象 勞動力의 有機的인 結合如何에 달려 있다 하겠다. 따라서 經營改善이나 經營合理化란 一般的으로 그 경영의 生産力을 提高하는 方法을 採用함과 同時에 그러한 方向으로 경영을 轉換시키는 일이 重要하다 하겠다.

農業生産力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土地單位面積當」으로 하는 方法과 「投下勞動單位當」으로 하는 方法이 있다. 前者는 土地生産力을 後者는 勞動生産力을 나타내는데 土地生産力을 重視하는 見解는 高率의 小作料耕地의 不足, 농촌의 過剩人口라는 狀況속에서 人間勞動을 濫投하여 간다는데 根據가 있다. 그러나 元來 農業生産力의 向上이란 技術向上에 基底를 둔 人間勞動이 自然의 制約을 克服해 간다는 過程을 뜻한다면 農業生産力의 本質은 人間勞動의 生産力 即 勞動生産力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勞動生産力과 土地生産力과는 相互 補完해 나감으로서 더 완벽을 期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土地生産力은 單位面積當 收量으로 그리고 勞動生産力은 投下勞動의 單位時間(日)當 收量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經營全體의 生産力을 計測하기 위해서 土地生産力은 單位面積當 粗生産額 即 農業粗收益으로 算出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平均이 어떠한 水準에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表19> 農業粗收益은 농업의 純生産額을 表示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物財費(雇傭勞賃不包含)를 控除하면 農業純生産額이 算出된다. 農業所得이란 엄밀히 말한다면 이 農業純生産額에 해당한다. 農業純生産額은 農業勞動에 依해서 創造附加된 價值

額 卽 農業勞動報酬이다. 이러한 農業純生産額을 單位面積當 및 單位勞動當으로 살펴보면 <表20>과 같다.

< 表 19 > 土地生産力과 勞動生産力

經營耕地面積	2,923 垧
農業勞動投下量	1,378 時間
家族	451
雇傭	185
計	2,014
農業粗收益	150,995 圓
1段步當 農業粗收益	15,300 圓
勞動 1日當 農業粗收益	68 圓※

※ 15,300 圓 ÷ 224 日 = 68 圓
 農業勞動投下時間을 1日9時間으로
 日數 換算하면 224 日이 됨
 資料: 농림부『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勞動投下量은 P.97에서 引用

< 表 20 > 農業純生産額 單位: 圓

業純生産額	126,150.00
段當農業純生産額	13,604.00
勞動 1日當 農業純生産額	60.76 ①
農業從事員 1人當 農業純生産額	40,432.00 ②
全上 1人 1個月當	3,369.00 ③

① 13,604 ÷ 224 日 = 60.76
 ② 126,150 ÷ 3.12 人 = 40,432 · 第 III - 3 表參照
 ③ 40,432 ÷ 12 = 3,369

資料: 농림부『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P.60, P.65, P.447에서

이 農業純生額은 理論上으로는 農業從事員의 勞賃部分과 利潤部分으로 形成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利潤部分에서 地代나 租稅公課가 支給되어야 할 것이다. 農業經營을 企業으로 看做해서 計算하자면 投下資本에 對한 利子까지도 支給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指摘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 농가는 一般의으로 農業所得만으로는 家計費의 91.1%를「커버」할 수 있을 程度이므로 이를 農業以外的 産業 特히 鎭業, 製造業의 平均賃金인 日當 240 圓 (表21)과 比較해 볼때 농가의 農業勞動 日當 報酬가 얼마나 低水準인가를 알 수 있다. 農業從事者 1人 1個月 勞動報酬 3,369 圓이란 水準은 우리나라의 最下級 所得階層에 속한다.

以上은 平均農家에 對한 數値이거니와 經營面積이 큰 농가에서는 粗生産額과 純生産額이 함께 커진다.

이와 같이 反當粗收益과 所得 및 勞動 1日當 粗收益과 所得 등 收益의 觀點에서 보는 指標와 함께 農產物別로는 反當收量, 反當勞動時間, 單位勞動當收量 등의 物量의 觀點에서 파악한 指標도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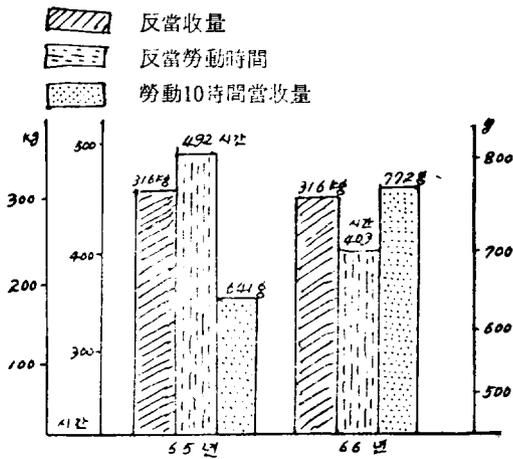
米穀에 對해서 살펴보면 <圖5>와 같다.

< 表 21 > 鎭業 및 製造業의 賃金 單位: 圓

年 度	鎭 業 (A)	製 造 業 (B)	$\frac{(A) + (B)}{2}$	日當平均
1,966	8,920	5,480	7,200	240

資料: 한국은행『經濟統計年報』1967

〈圖 5〉
米穀의 生産力 指標



資料: 農林部『農林統計年報』1967 P. 172
農林部『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1967. P. 95에서

水稻作勞動에 대한 投下時間은 점점 감소되고 있으나 勞動時間을 作業別로 檢討해 보면 가장 減少率이 높은 것은 耕起와 培土作業 除草作業인데 이는 機械耕과 除草劑의 普及에서 오는 현상이다.

3. 農業生産力의 構造

經營生産力의 높이는 경영에 投下된 資本構成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資本構成이란 問題를 提起하는 根本趣旨은 勞動手段과 勞動力과의 結合程度를 明白히 하는데 있다.

먼저 가족의 農業勞動投下量을 賃金으로 換算하여 家族勞動賃金を 算出하고 여기에 雇傭賃金を 加算한 것을 勞動에 對한 資本投下額으로 評價해 본다.

한편 物財에 대한 資本投下額은 다음 두가지로 分類해서 考察해 본다.

第1分類는 肥料, 飼料, 農藥, 諸材料, 光熱動力과 같은 1年間 農業生産過程에서 모조리 消費되어 그 價値額全部가 生産力에 移轉 된다고 보는 流動財에 대한 資本投下이며, 第2分類는 建物, 大農具, 大動物, 植物등 每年 그 價値額의 一部分이 生産物에 移轉된다고 보는 固定財에 대한 資本投下 部分이다.

勞賃資本(V)과 物財資本(C)의 結合比率을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라 하는데 資本總額(C+V) 中에 차지하는 物財資本部分(C)의 比率이 높을수록 有機的 構成은 높고 有機的 構成이 높을수록 經營生産力이 높아진다. 또한 物財資本中에서 固定資本(C₁)이 차지하는 比率을 固定資本比率, 勞賃資本(V)中 雇傭勞賃(V₁)이 차지하는 比率을 雇傭勞賃比率이라 해 본다.

67年度의 資料로 全國平均農家に 對해서 資本構成을 보면 <表22>와 같다.

단보당 資本投下額은 농업경영의 集約度를 나타내며 단보당 勞動投下日數는 勞動의 集約度를 나타낸다.

勞動集約度를 나타내기 위해서 家族勞動을 賃金으로 評價하고 여기에 雇傭勞賃을 加算하여 단보당 얼마를 表示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投下資本集約度는 投下資本에 對한 순수익을 對應시켜 考察해야 한다. 농업의 순수익은 生産物中에 移轉된 資本價値의 總額을 農業粗收益에서 差減한 후의 殘額이다. 農業粗收益에서 小作料, 租稅公課, 諸負擔金및 負債利子를 控除한 것을 農業利潤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경영면적이 작은 農家群에서는 段當勞動

農業投下資本의 構成 (戶當)

< 表 22 >

物財資本 (C)	{ 固定資本 (C ₁)	1,541 원
	流動資本 (C ₂)	13,893 "
	計 (C ₁ +C ₂)	15,434 "
勞賃資本 (V)	{ 雇傭勞賃 (V ₁)	18,802 "
	自家勞賃 (V ₂)	46,260 "
	計 (V ₁ +V ₂)	65,062 "
生産物에 移轉된 資本總額 (C+V)		80,496 "
固定資本比率	$\frac{C_1}{C_1+C_2}$	9.9%
雇傭勞賃比率	$\frac{V_1}{V_1+V_2}$	28.8%
投下資本의 有機的構成	$\frac{C}{C+V}$	19.1%

- (註) 1. 農業臨時雇傭賃金은 1日當 平均 257원으로 計算 前掲註(6)參照
 2. 雇傭勞賃 73.16日×257원=18,802원
 3. 自家勞賃 180日×257원=46,260원

投下量이 크고 勞動集約的인데 <表23> 投下資本을 순수익과 對比해 보면 經營면적이 클수록 有利한 傾向이 나타난다.

< 表 23 >

經營規模別 勞動集約度

單位: 원

全 國	0.5정 보미만	0.5~1.0	1.0~1.5	1.5~2.0	2.0町步以上
246.76	313.14	245.97	210.77	187.55	161.02

以上の 分析方法은 가족농업經營을 資本制的 經營으로 看做해서 計算한 것이기 때문에 實感이 잘 안 날 것이다.

例컨데 實際로 賃金支給이 없었던 家族勞動을 賃金으로 評價할 수 있는 것인지는? 家族的小農經營에서는 雇傭勞動도 家族勞動의 보충이란 意義밖에 갖지 못하므로 雇傭勞賃 역시 資本支出을 뜻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 가족농업 經營은 資本主義經濟의 環境下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경제의 再生産은 資本主義의 經濟法의 圈外에 설 수 없다.

농가경제는 貨幣經濟化하고 있으며 市場依存度도 加增되어 가고 있다. 農産물의 商品化의 面에서나 勞動力의 商品化의 面에서나 농가 경제는 資本主義經濟의 支配를 脫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主題삼는 經營生産力의 構造를 明白히 한다는 課題는 결국 이러한 환경속

에서 경영의 市場競爭力의 強弱을 確認해 보는데 있다 하겠다. 그러한 意味에서 資本主義的 計算機構을 통한 經營分析方法이 意義가 있게 된다.

그러나 家族勞動을 賃金으로 評價해서 家族勞賃을 計算한다고 해도 그 賃金을 농촌의 臨時雇傭賃金에서 求하는 論據는 무엇인가. (5)

우리나라의 農村臨時雇傭員은 小規模農業에 있어서의 家口員의 兼業的 勞働이므로 거기에서 成立되는 勞賃水準은 農業勞動者로서 自立生活이 保障될 수 있는 정도의 額이 못 된다.

67年度 農村의 農業勞動賃金平均은 男子 307원, 女子 207원 (以上 모두 給食物評價額包含)인데 (6) 同年의 鑛業從事員의 日當賃金은 391원, 製造從業員의 그것은 224원이므로 (7) 농가의 家族勞動을 위의 他產業平均賃金으로 評價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計算數値는 根本的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4. 自家勞動에 對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의 目的은 家族生活의 維持 또는 再生産에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利潤追求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농가에 따라서는 豐足하고 높은 水準에서 영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요 또 극히 低水準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要컨데 그 水準이란 우선은 농가의 主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므로 水準을 더 低下시킬 수도 있는 幅을 갖고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黑字 농가라 하더라도 家計費의 內容이나 生活水準을 檢討해 보지 않고서는 眞實한 黑字라고 速斷할 수 없다함은 앞서 指摘한 바이다. 그런데 支出을 經營비와 家計비로 分類하고 農業粗收益에서 농업경영비를 差減한 농가소득을 家計비에 充當한다는 것이 농가경제의 計算方式이다.

따라서 家族勞動은 費用으로서 經營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家族勞動은 農業所得이란 形態로 勞動報酬를 받음으로서 家計費가 自家勞動의 報酬라는 點으로 理解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업경영과 農家生活이 相互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우리나라 家族勞作的인 농업경영의 實態에 그 原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家族勞賃을 費用으로서 經營비에 計上치 않고 家計費에 充當한 農業所得을 可能한 限 크게 하자는데 經營의 目標을 둔다는 것도 危險한 일이다. 가족노동의 濫投에 따른 過勞에 시달리면서도 農業所得이 커지면 그만이라는 方向으로 經營을 誤導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勞動生産力의 提高方法을 研究하지 않고 勞動集의化로서 反當收量을 높이자는 意圖나 그러한 方向으로 技術指導를 하는 것도 結局은 自家勞動이란 「공자」라는 傳統的인 意識이

(5) 農林部「農產物生産費調查要綱 및 解說」

(6) 농협조사월보 1968, 6月號 P. 50

(7) 한국통계월보 1968, 8月號 P.P 66~7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識下에서는 經營採算을 目標로한 近代의 合理的인 費用計算은 成立되지 않으며 勞動生産力을 提高시켜 市場競爭力을 強化한다는 方向提示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가경제는 노동력의 販賣라는 面을 통해서 또는 商品을 통해서 資本主義經濟全體의 再生産過程에 깊숙히 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농가는 自給部分을 包含한 農家經濟全體의 計算을 貨幣計算을 土台로 行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過程에서 自家勞動이 「공자」라는 농가의 觀念도 改善되어 갈 것이다. 특히 農業外的 産業에 매치는 兼業賃勞動의 形態로 농가 노동력의 商品化가 擴大되어가고 있는 現實은 농가와 他産業과의 勞動力的 交流가 密接해 가는 證據이기도 하다. 이는 自家勞動의 價値評價에 對해서 社會的인 基準을 導入할 좋은 契機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이다.⁽⁸⁾

V 結 論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農業經營의 零細性和 농가경제의 低水準을 여러가지 分析을 通하여 吟味해 보았다.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轉換點으로 하여 우리나라 農業의 開發像은 漸進的으로 農業增産 爲主로부터 所得均衡 實現이라는 政策「슬러진」으로 移行되어 가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農村과 都市와의 不均衡成長에 對해서는 序論에서도 多小「탓취」한 바 있거니와 工業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脆弱한 一般的인 屬性 (零細分散耕地, 家族的 生計農業, 勞動集約的 營農, 單作偏重, 過剩人口로 因한 노동의 不完全燃燒等) 때문에 不均衡成長의 論理가 成立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叙上한 農業의 屬性外에도 家計와 經營이 分離되지 않았을 경우 不均衡成長은 不可避하며 이것이 곧 農業所得向上을 가로막는 암이 되고있다.

이와같은 農業構造는 새로운 局面에서 檢討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政府는 이러한 目標를 위해서 多角的인 政策構想을 試圖해 왔다. 全農家に 對하여 同時的 劃一的으로 体制의 變革을 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重點的, 階層別, 對象別로 政策의 比重을 달리할 수는 있다. 農業生産體와 所得增大를 위한 經營體質에 根本的인 改革이 있어야 한다.

첫째 經營의 大規模化이다.

現存하는 農地의 利用率을 높일 뿐 아니라 農業近代化에 直結되는 農業의 機械化 乃至 生産의 大量化로서 商品生産化를 促進시키기 위해서도 土地基盤을 再整備하여야 한다. 卽, 總耕農地의 零細化를 防止하는 方法으로 3町步 上限의 緩和, 土地의 交換分合, 耕地整理,

(8) 袁茂基「農產物 生産費에 關한 一考察」서울大學校 商科大學 經濟論集 VI卷 第2號 P. 141

畜産擴張등을 制度的으로 뒷받침 하여 農産品の 商品化率을 높이는 体制로 갖추어야 한다. 現在와 같은 耕地構造로 보아 機械化등 資本裝備의 高度化나 大規模 生産의 利益을 具現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農業共同화와 農業法人制度的의 設置이다.

零細多數의 經營單位를 한데 묶는다는 것은 農業 構造改善策으로서 農業共同화를 指向하는데 큰 意義를 갖는다. 이러한 共同화를 推進하는데 農業法人制度를 設置하여 經營의 大規模化 및 系列化 非營農資本의 誘致등을 戒할 수 있으며 따라서 生産性向上에 至大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農家所得의 都市民 所得과의 均衡化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經濟性이 높은 作物을 重點的으로 生産할 것이다. 이들을 위해 營農資金 生産資材 共同利用加工施設등 政府支援이 있어야 하며 適正價格維持, 價格豫示, 契約栽培를 履行해 주고 制度金融의 범위를 넓혀 이를 低利 中長期体制로 轉換해야 한다.

外國의 경우 美, 英, 佛, 伊, 西獨등에서는 短期農業信用일 경우 年利 4~7% 內外, 中期일 경우 3~6% 內外, 長期일 경우에는 3~5%로 融資해 주고 있다¹⁹⁾ 는 것을 우리나라 農業政策立案當局은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9) 농협조사원보 「農工併進과 農業開發」 1968, 6月號 P. 15